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후 (3부) 10시 12시
오후 (4부) 12시 2시
금요일예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12시
오후 (3부) 12시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3월 30일 (제 735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봄이 왔다. 갈 것 같지 않던 지루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겨울아, 가라 가라' 해서 겨울이 가는 것이 아니고, '봄아, 빨리 와라, 와라' 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겨울이 지나면 뭐라고 안 해도 봄은 온다. 때가 되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찾아온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과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승진에 있었다. 필드를 걸으면서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 수 있는지 묻기에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집니다."라고 말해줬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기록된 전도자의 말은 진리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3:1-8).

그렇다. 임신했다고 예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듯, 씨를 심었다고 바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듯, 때가 되고, 때가 차야 일이 이루어진다. 잔칫집의 종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는 항상 100만 명 앞에서 본케 목사처럼 설교하기를 원했다. 그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기도의 목이 잘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12년 파라과이 집회 때, TV 대담프로 그램에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한 일이 있는데, 그 방송의 시청자 예측치가 170만에 육박했다고 한다. 때가 되니 꿈이 이뤄진 것이다.

다들 조금증이 너무 심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물거면서 승능을 찾는다. 그러나 모든 열매는 인내와 기다림 끝에 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온 미숙아는 건강을 염려해야 하듯, '일찍', '빨리'가 꼭 좋은 것이 아니다. 먼저 핀 꽃이 일찍 지는 법이다. 깊이 유념하자.

성공하려면 의식구조를 바꿔라

D-56,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56일 남은 시점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서울과 경기 일원의 주의 종들과 뜻 있는 장로들을 집회 장소인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이게 했다.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동참의식, 주인의식도 좋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믿음의식, 긴장의식이라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 작은 우리 예루살렘교단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였고, 이제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열게

이 기도 성회는 말 그대로 이 나라에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력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루어 예수 꽃 향기가 화려강산인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만발하게 하기 위한 기도성회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네 교단, 우리 교단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사(大事)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와 노력과 준비'입니다. 기도와 노력, 준비는 나의 절친한 세 친구입니다. 내 목회 30년 동안 이 세 친구가 있

고 합심기도 했기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통일이 다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우리 교단이 앞장서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일에 대동단결하여 믿음의식, 긴장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필두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대한민국 심장부 시청 앞 광장을 한 바퀴 돌며 기도했다.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돌았듯이.

그리고 모두는 남산을 향하여 걸으며 봄



5월 20일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목회자 기도모임(2014. 3. 24, 서울 시청 앞 광장)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방백이나 돈이나 어떤 힘을 의지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며, 또한 '뭐 아직 시간도 많은데,' 혹은 '본부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일함을 가지고는 절대 조직적인 군사력을 가진 마귀군단을 이길 수 없기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정신력인 예수정신을 불어넣고 남미로 가려 합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음을 잘 아실 겁니다. 영적전쟁도 승리뿐입니다. 승리만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우리 교단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도 더욱 아닙니다.

어 오늘의 내가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이루어졌고,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었으며, 준비한 만큼 박수 받았습니니다. 여러분도 이 세 친구를 의지해야 이번 기도성회는 물론 대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자들은 조국통일에 역사적 사명을 띤 자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안보 없는 나라의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입니다.

통일은 불현 듯 올 것입니다. 누가 동독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동서독의 뜻있는 자들이 쉬지 않

의 정취를 느꼈고, 남산 정상인 팔각정에 모두 모여 함께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한 전도사가 꿈을 꾸었는데, '이초석 목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곧 내 사인이자'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모임은 성회가 있기 전까지 매우 월요일에 계속 될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꼭 참석할 것을 명령하셨다.

5월 20일, 저녁 9시 '평화 통일 기도 성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그래서 시청 앞 집회 사상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이초석목사 베네수엘라 집회
장소: 미란다 일사: 2014년 3월 25일(화) ~ 4월 3일(목)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6:32)

성공하려면 자기관리에 철저하라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잠8:1).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자기 관리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의 대상, 존망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관리가 무엇입니까? 영·혼·육에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얼굴관리입니다. 피부 관리가 아니라 표정관리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표정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얼굴의 표정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표정도 어둡습니다. 기쁘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우리 얼굴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타인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또 좋은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표정연출은 필수적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좋은 느낌을 주는 표정은 당연 웃는 것일 겁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재일교포인 양미자 권사가 한 끼에 12만 엔이나 하는 ‘행락원’이라는 일본 전통음식점을 예약해놓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성도들과 함께 비빔밥이나 해먹자고 했지만, 양 권사는 해약을 해도 돈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이 우리

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거북이는 갑갑적인 방법으로는 거북이의 목을 밖으로 끌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북이를 볼 가까이 놓는 것입니다. 온 몸이 따뜻함을 느끼면 거북이는 스스로 머리를 내놓습니다. 인간 사회도 같습니다. 성내지 않고 웃음으로 사람을 대해보세요. 풀리지 않던 일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 같이 지혜로 우라는 말씀이 있는데, 뱀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조절,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언어 관리

를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면 ‘질간

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했고, ‘말 한 마

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

자는 “허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

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약3:5)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화술은 남다른데, 화술이란 상황이나 사람이나 때에 따라 말을

가려할 줄 아는 기술이며, 이것이 곧 성공

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

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니라”(잠25:11)고 했습니다.

또 말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응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응답 받는다’라는 말이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잠18:21),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벧전3:10-11). 그러므로 입술을 잘 놀려야 합니다. 상스러운 말, 남을 헐뜯는 말, 세속적인 말은 자기 주가를 떨어트리는 말이니 말을 생각하고 하고, 말을 가려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사관리입니다. 의복은 ‘제2의 피부’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성공자는 외모에도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삼상16:7).

전(前) 대통령 이 대통령 후보로 방송 3

이상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묻자 정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전에 허름한 옷으로 찾아왔을 때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귀한 대접을 하는구나. 모두 이 옷 덕택이니 음식 먹을 자격은 이 옷에게 있느니라.”

명품이나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닌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

니다. 격에 맞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의상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넷째, 인격관리입니다. 인격(人格)이란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데, 인격관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실천하고 습관화 하면 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 자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5:14-15)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중간에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의 비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천국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해 방성대곡하는 꼴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25:13).

인간관계에서의 지식은 윤리와 도덕은 물론이요, 그를 넘어서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을 때, 그 사람은 존망과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주위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입니다. 사업가는 시장관리, 고객관리, 품질관리를 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 관리를 해야 하고, 부부도 서로 관리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도 성도관리를 해야 부흥을 이루고, 개인은 오늘 말씀대로 자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으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경영은 곧 관리요 관리는 곧 점검이다

식사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하길래, 제가 “이 음식점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웃음을 잃은 종업원을 자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행락원을 최고의 음식점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저는 이 경험담을 우리나라 최고호객 지배인들에게도 전수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표정으로 손님을 맞는 곳에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늘 화나 버럭 내는 아내나 남편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열이면 열 다 싫다고 할 겁니다. 교육받은 게도 아무 때나 짓지 않는데, 매번 화나 버럭 낸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

를

해야 합

니다. 말을

잘하면 ‘질간

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했고, ‘말 한 마

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

자는 “허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

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약3:5)라고 말했

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화술은 남다른데, 화술이란 상황이나 사람이나 때에 따라 말을

가려할 줄 아는 기술이며, 이것이 곧 성공

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

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니라”(잠25:11)고 했습니다.

또 말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응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응답 받는다’라는 말이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잠18:21),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

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

라”(벧전3:10-11). 그러므로 입술을 잘

놀려야 합니다. 상스러운 말, 남을 헐뜯

는 말, 세속적인 말은 자기 주가를 떨어

트리는 말이니 말을 생각하고 하고, 말

을 가려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것입니

다.

셋째, 의사관리입니다. 의복은 ‘제2의

피부’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성공자는 외모에도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

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

다(삼상16:7).

전(前) 대통령 이 대통령 후보로 방

송 3

니다. 격에 맞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의상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넷째, 인격관리입니다. 인격(人格)이란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데, 인격관리는 마

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실천

하고 습관화 하면 됩니다. 즉 심령이 가

난한 자, 온유한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 자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

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

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5:14-15)

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

한 다섯 처녀와 중간에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의 비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

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천

국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해 방성대곡하

는 꼴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

지 못하느니라”(마25:13).

인간관계에서의 지식은 윤리와 도덕은

물론이요, 그를 넘어서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절이라는 그릇

에 담을 때, 그 사람은 존망과 선망의 대

상이 될 것이며, 그 주위로 사람들이 꾸

역꾸역 몰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

공의 밑거름입니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입니다. 사

업가는 시장관리, 고객관리, 품질관리를

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 관리를 해야 하

고, 부부도 서로 관리해야 가정이 평안

합니다. 교회도 성도관리를 해야 부흥을

이루고, 개인은 오늘 말씀대로 자기관

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으로의 길

입니다. 할렐루야!

나한일과 금장시계

1990년의 일이다. 그 당시 신학교에 입학한 필자는 매주 목포와 서울을 오가고 있었다. 입학과 동시에 목포의 개척교회에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었기 때문이다. 버스로 상경하던 어느 날이었다. 중간 휴게소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에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이 올라왔다. 그런데 난데없이 숫자가 적힌 표를 나눠주더니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유지광역으로 한창 인기를 끌던 나한일 씨가 금장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찍힌 포스터를 보여주고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회사 홍보 기간이라 단지 몇몇 분들에게만 드리는 기회입니다. 스위스○○사와 기술 제휴하여.... 찰라찰라.... 보시다시피 배우 나한일씨가 보충합니다."

정리하자면 '제비를 뽑아 딱 두 사람에게만 고가의 남아 금장시계 한 세트를 홍보차원에서 단지 3만원에 주겠다'는 것이었다. 화려한 금장시계, 유명 연예인이 모델, 그럴듯한 품질보증서, 그리고 불과 몇 몇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기회.... 제법 솔깃한 제안이지 않은가?

설명이 끝나고 제비를 뽑는 긴장된 순간,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내 번호가 불려졌다. 열걸레 손을 들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하라며 다그친다. 갈등은 짧았고 결정은 신속했다(실상은... 정신이 없었고 욕심이 앞섰다).

부도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신화를 운 터에 항상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어쩌면 어색해진 그 관계를 되돌리기 좋은 선물

이 될 수 있으리라 나를 생각했다. 그래서 이 행운에 감사했다.

하지만 행운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전국의 휴게소를 대상으로 활동하던 전문 사기단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특종으로 보도된 것이다. 배경 화면엔 문제의 나한일 씨의 포스터도 스쳐지나갔다.

순간 입맛이 썼다. 하지만 드러난 외적 조건만 보고 냉큼 판단해버리는 실수는 그 후로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행운이란 사실, 하늘에서 '딱' 하고 떨어지듯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준비한 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기회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영어로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표현이 있다. '책의 표지만 보고 그 책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다. 직접 쭉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게 세상일이요 또 사람이다.

내용이 실험수록 겉포장 또한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내용, 즉 알맹이가 아니겠는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 또한 우리에게 교훈한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옛사람 중 하나는 '화이부실(華而不實)한 사람'을 경계했다. '꽃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할'을 지적한 것이다. 겉포장에 속지 말자. 선불리 판단하지도 말자. 지금 당신은 어떠한가?

신현명 목사

어머니의 요리

우리 어머니는 예전부터 몸이 약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만든 도시락은 아침으로라도 보기 '좋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아무리 음식은 맛보다 맛이지만 깨지고 터지고 타버린 반찬 뿐.

그런 도시락을 친구들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던 나는 매일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내다버렸고 학교식당에서 사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기쁜 듯이 "오늘은 우리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반찬이네." 하고 귀찮게 주시길래 들뜬 마음으로 도시락을 학교에서 열어보았지만, 역시나 새우는 물론이요 같이 들어있던 계란도 마찬가지로 다 터지고, 모양도 찌그러지고, 색도 이상하고 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는 나에게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 어땠어?" 하고 끈질기게 물어왔다. 문득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나는 평소 어머니의 도시락에 대해 쌓인 울분을 토해내듯이, "시끄러워! 그런 더러운 도시락 따윈 버렸대구! 매일 도시락 안 만들어도 돼! 어차피 매일 버리고 매점에서 사먹었으니까! 그딴 도시락을 어떻게 먹느냐 말아야!"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다.

어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그랬구나... 미안해..." 하고 말하셨고, 이후 도시락을 만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반 년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몸이 약하긴 했지만 난 그게 병 때문인 줄은 미

처 몰랐었다. 그러던 도중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보니 일기가 나왔다. 그 일기는 내 도시락에 관한 내용뿐이었다.

'병이 더 심해진 것 같다. 이제는 손의 흔들림이 도저히 멈추지를 않는다. 계란조차 예쁘게 부칠 수 없다...'

일기는 그 날로 끝나 있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마7:9~11)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남들보다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혹여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나 투정하지 말자.
못해주는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나의 사랑아는 손자, 손녀들아 보아라!

이초석 목사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

애들아,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잘 보아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일에도 충성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진리란다. 즉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한 자는 큰일에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는 큰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지. 또 지극히 작은 일을 점검한 자는 큰일도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막는다는 말씀이란다. 너희가 학교, 군, 외국, 사회에 있으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큰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매사 최선을 다하며 철두철미하게 점검할 때 너를 사랑하고 너를 후원하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란다.

애들아, 생각보다 빠른 것이 습관이라고 할아버지가 늘 말했지? 매사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습관, 또 점검하는 습관이 너의 운명을 바꾸게 된단다. 할아버지의 오늘이 있는 것은 오늘을 마

지막으로 알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란다. 또 나를 잘 관리하고 늘 점검했기 때문이기도 하단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아!

이제 뒤통은 잊어버리고 오직 너희 앞에 있는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질주해라. 그 목표와 목적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달릴 수 있단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속히 얻고,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단다.

꿈을 꾸려면 꿀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잠언 11장 30절에 말씀하셨지 않나?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표정관리, 언어관리, 의복관리, 행동관리, 즉 자기관리를 잘하는 자란다. 그러면 네 앞에 다리를 놔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들이 네게 몰려 들어 내가 큰 나무가 되는 거란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늘 너희에게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네 인생의 거름이 되는 말이란단다. 거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때를 따라 소독을 하고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기다려야 거목이 된단다. 그래서 기다림은 끝이 있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누차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란다. 할아버지가 늘 너희에게 교육한 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 그것이 네 삶의 거름이 되어 너희가 거목이 되는 거란다.

멀리보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라.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다보면 더딘 것 같겠지만, 그것이 남들보다 목직지에 빨리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임을 잊지 말라. 자 재력이 있으면 실수와 실패가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

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하고 실패한다면, 그것은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라. 경험이라는 단어만큼 값진 것이 없단다. 그러니 네 사전에는 '실수와 실패'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경험'이라는 단어를 가져라. 이것이 성공의 징검다리요, 너희 인생에 성공촉진제가 되어 너희들로 이 나라에 빛을 발하고 세계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아멘만큼 인생은 성장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부탁하건대,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고 시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 너희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거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내가 매일 기쁘게::

::생각해봅시다::

‘부재(不在)’를 통한 깨달음

내 기억이 맞다면, 10여 년 만에 어머니가 여행을 가셨다. 이번 여행이 있기 전까지는 졸곧 모녀가 동행하는 여행이었다. 주변 지인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온몸으로 받으며 즐기자게 함께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머니만 여행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여행이었음에도 어머니와 나 모두 여행에 대한 걱정을 했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없이 운영될 일터와 가정에 대한 걱정이었고, 나는 어머니의 건강과 여정이 즐거우게 함께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머니만 여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어머니의 단독 여행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재(不在)’를 통한 깨달음이다. 좀 더 덧붙이자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속담과 비슷한 내용이다.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 때에는 이런저런 잔소리가 버겁고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 어머니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어머니의 여행이 걱정되는 한 편, 솔직히 후련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기도를 했던 것 같다. ‘왜 나는 여행을 떠날 수 없고, 뒤늦은 후회를 하며 불안해 하나?’ 라는 어리석음과 아쉬움에 한숨이 다 나왔다. 항공사에 비행기 도착 스케줄을 조회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기까지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러나 문득, ‘하나님 곁을 떠나 방황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찬송과 기도로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은근슬쩍, 또 스리슬쩍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다보면, 어느 날 문득 나와 동행하시던 예수님도 ‘부재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영혼이기에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무뎌질 때, 그 때의 낙망과 좌절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더 이상 밭 디딜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나를 건져주실 주님의 손길을 찾을 수 없다면, 그보다 더한 ‘부재’의 공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좀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정진하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이번 어머니의 여행을 통해 얻은 나의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전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스러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9년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분에 한 명꼴로 하루에 42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스스로 포기하며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5,000명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1만 5,000명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을까요? 아

마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9:27)고 말씀합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하고, 죽고 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의 때를 만나게 되는데,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과 영원히 깨지지 않는 불구덩이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고통 받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 다른 방

법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요14:6). 이것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의 원형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잠시 잠깐 후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험난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진심을 울리는 말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 말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말에 담긴 진심과 진정성에 따라서 그 속담의 효용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건강으로 성의 없이 주고받는 말로 천 냥 빚에 버금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주님의 관심을 받을 수 없듯이, 인간 사이에 오고가는 말에도 진심의 깊이가 없는 상태로 무미건조하게 대화할 바에는 차라리 상대를 침묵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또한 과장되거나 허풍스럽고 장황한 말 역시 우리가 대화할 때 버려야 할 못된 약속들이다.

수년 전 오랜 친구와 깊은 속내를 털어놓으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십여 년 만에 만난 친구와 거의 열 시간 가

랑을 마주 앉아있었지만 주고받은 대화는 그리 많지 않았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심과 진심이 소통되는 친구 사이에는 천만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만 있어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 때 그 친구의 말은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친구를 향한 그리움을 삭일 수 있는 아름다운 말로 기억에 남아 있다.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 넘치는 인터넷 메시지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화 속에 서로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오래 두고 사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 나의 진정성과 진심이 담겨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상태로 안녕을 묻고, 근황을 이야기하고, 입에 발린 소리를 내뱉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말이 필요한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많은 말보다 위로와 안식, 평안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 스며든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것이야말로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오늘도 나를 둘러싼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며 그들의 관계를 진전시킬지 고민해보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번져 나오는 한마디의 따뜻하고 진심어린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자유

oh free@hanmail.net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백(Springbok)이라는 산양(山羊)이 있습니다. 스프링처럼 툭툭 뛰는다고 해서 스프링백이라 합니다.

이 양들은 20~30마리씩 무리를 지어 풀을 뜯어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서 뒤에 있는 양이 먹을 것이 없으면, 뒤에 있던 양들이 앞으로 스프링처럼 뛰면서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풀을 먹던 앞의 다른 양들이 이유도 없이 이 양을 따라서 덩달아 쫓힙니다. 처음에는 이 양이 뛰니까 덩달아 뛰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앞지르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갈수록 엄청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고, 뒤의 양에게 밀려서 달리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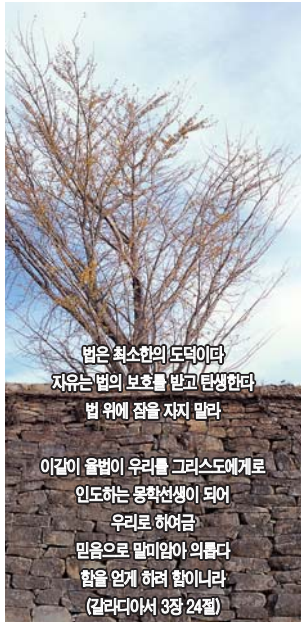
이런 질주가 평지에서라면 괜찮은데, 행여 절벽이라도 이르면 앞의 양들이 멈추려 해도 속도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뒤의 양들에게 밀려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함께 떨어져 죽고 맙니다. 때죽음이죠. 전혀 이유도 없이.

이것이 여러번의 모습이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스프링백 산양의 모습이 당신이 라면?

아직도 왜 사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남몰래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예정하신 이 땅에 보내졌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며, 결국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스프링백 같은 삶이 됩니다. 어서 하나님 안으로 오세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자유는법의 보호를 받고 탄생한다
법 위에 짐을 지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명확한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